

연예뉴스 스테이션

‘한국 3대 DJ’ 김광한 별세 팬들 추모 잇따라

세상을 떠난 DJ 김광한을 향한 팬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1980년대~1990년대를 대표하는 DJ로 평가받는 고인은 이종환, 김기덕과 더불어 국내 ‘3대 DJ’로도 꼽힌다. 1982년부터 12년 동안 KBS 라디오 ‘김광한의 팝스 다이얼’을 진행했다. 고인은 6일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져 서울 삼육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스포츠동아 7월8일 단독보도> 잠시 호전되는 듯 했지만 결국 의식을 찾지 못하고 9일 밤 9시37분 세상을 떠났다. 향년 69세. 발인은 11일 오전 삼육의료원 추모관에서 엄수됐다. 유족 관계자는 “임종 전 부인의 말을 희미하게 알아듣는 것 같았지만 끝내 아무런 말씀 없이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고현정·조인성 “귀국날짜 겹쳐” 열애설 부인

배우 고현정과 조인성이 일본의 한 공항에서 서울로 함께 귀국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열애설에 휘말렸다. 이에 두 사람이 소속된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일본에서 각자 일정을 소화하고 마친 귀국날짜가 겹쳐 함께 돌아온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앞서 10일 SNS를 통해 퍼진 문제의 사진에서 조인성은 직접 쫓는 카드에 고현정의 짐으로 보는 가방을 함께 올려둔 상태였다. 이들은 2006년 SBS 드라마 ‘봄날’에 출연한 뒤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모욕죄 피소’ 채림·박윤재 남매 무혐의 처분

모욕죄로 피소된 연기자 채림과 박윤재 남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어머니를 찾아온 지인 이모 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피소된 채림, 박윤재 남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씨가 밤 10시에 채림 남매 어머니의 집을 찾아왔고, 앞서 지속적으로 어머니를 괴롭혀왔다는 점을 고려해 모욕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채림 소속사 싸이더스HQ는 “이 씨는 채림 남매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 및 정신적인 피해를 끼쳐왔다”고 주장했다.

신은경 “날 이해해줄 사람 만났다” 열애 고백

배우 신은경이 12일 방송된 SBS ‘잘 먹고 잘 사는 법, 식사하셨어요?’에 출연해 “최근 인간 신은경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며 열애 중인 사실을 고백했다. 신은경은 “만난 지 오래되진 않았다. 마음을 연 건 최근이다. 김 씨 성의 일반인이고, 나이차이는 잘 어울리는 정도”라고 소개했다. 신은경의 소속사 런엔터테인먼트 측은 “신은경의 열애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열애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음주차량 동승 지코 ‘쇼미더머니4’ 계속 출연

음주운전자의 차량의 탑승했다가 음주운전 방조 의혹을 받았던 블라비 지코(23·우지호·사진)가 엠넷 ‘쇼미더머니4’에 계속 출연한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지코는 스스로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프로그램에서 계속 활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코는 9일 헬충 알고올농도 0.145%의 음주상태인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작업실로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지코는 매니저가 술에 취한걸 알면서도 운전대를 맡겼다면 방조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지코가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모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연평해전’ 올 한국영화 첫 400만 관객 돌파

‘연평해전’(감독 김학송·제작 로제타시네마)이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가운데 처음으로 관객 400만 명을 돌파했다. 6월24일 개봉 이후 11일까지 상영 18일 만이다. ‘연평해전’은 12일에도 관객을 더 모아 450만 명을 넘어섰다. 김무열과 이현우가 주연한 영화는 2002년 서해에서 일어난 남북 교전인 제2연평해전을 그리고 있다.

영화 랭킹

순위	영화	주간관객	누적관객	개봉일
1	연평해전	1,477,769	4,351,698	06/24
2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1,327,209	2,379,518	07/02
3	손님	444,020	447,019	07/09
4	인사이드 아웃	443,542	445,478	07/09
5	쥬라기 월드	401,549	5,260,421	06/11
6	극비수사	231,883	2,793,766	06/18
7	인사이드 3	163,262	163,435	07/09
8	소수의견	45,361	369,764	06/24
9	우먼 인 골드	37,928	42,408	07/09
10	1919콤 테드 2	19,058	168,661	06/25

편집 | 고정일 기자 ico@donga.com



구하라, 헬로비너스, 씨스타(왼쪽사진부터) 등 여성가수들이 섹시 콘셉트의 다양한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 | DSP미디어·판타지뮤직·스타쉽엔터테인먼트

스위트 섹시, 섹시크...평범한 섹시는 거부한다

(섹시+시크)

가요계 섹시 콘셉트도 퓨전 시대

구하라 첫 솔로 ‘초코칩 쿠키’ 티저 공개 달콤하면서 묘하게 섹시한 분위기 눈길

헬로비너스, 섹시크 콘셉트로 컴백 예고 씨스타·걸스레이는 헬시 섹시로 차별화

가요계 여풍이 거세게 불면서 섹시 콘셉트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건강한 섹시’가 이미 걸그룹 시장에서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최근들어 ‘스위트 섹시’ ‘섹시크’ 등과 같은 섹시 콘셉트의 다양한 ‘퓨전’이 시도되고 있다.

14일 데뷔 7년 만에 솔로활동에 나서는 카라의 구하라는 11일 첫 솔로앨범 ‘알로하라’ 타이틀곡 ‘초코칩 쿠키’ 티저영상을 공개한 후 ‘스위트 섹시’라며 자신만의 콘셉트를 소개했다. 싱그러움 소녀의 모습과 성숙한 여인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겠다는 의미다. DSP미디어 측은 “달콤하면서도 묘하게 섹시한 분위기를 그렇게 표현했다. 구하라의 순수한 듯 섹시한 매력에 담긴 목소리로 ‘초코칩 쿠키’를 들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컴백하는 헬로비너스는 ‘섹시크’라는 콘셉트를 예고했다. 섹시크는 섹시와 시크의 합성어로, 섹시한 매력과 함께 무대에서 도도한 여성의 모습이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소속사 판타지오 뮤직 측은 “걸그룹 대전 속에

서 ‘섹시크’는 헬로비너스만의 차별화된 매력 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크 잇’이란 노래로 활동중인 씨스타는 데뷔 당시부터 ‘건강한 섹시’라는 콘셉트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과 더불어 여성으로서 섹시한 매력을 동시에 갖춰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를 얻고 있다. 이로 인해 ‘헬시 섹시’는 씨스타는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최근 ‘링마벨’로 컴백한 걸스레이도 ‘건강한 섹시미’를 콘셉트로 앞세웠다. 작년 ‘섬싱’으로 활동하며 ‘섹시 걸그룹’의 모습을 보여줬던 걸스레이는 ‘링마벨’에서는 ‘개다리춤’을 추고 가마자세에서 영영이를 두드리는 등의 재미있는 춤 동작으로 이미지에 변화를

했다. 이 같은 ‘섹시 콘셉트’의 다양한 퓨전은 대중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선정성 논란을 비껴갈 수 있는 효과를 준다. 단순히 ‘섹시’라고 하면 ‘선정적인 것’이란 선입견을 줄 수 있지만, ‘건강한 섹시’ ‘스위트 섹시’ ‘섹시크’ 등은 그런 선입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김태규 대중문화평론가는 “여성으로서 섹시한 매력을 드러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그 섹시함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네. 섹시 콘셉트의 다양한 변형도 그 아름다움의 표현을 위한 치열한 노력의 일환이어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경 기자 gummy@donga.com

요즘 충청도사투리가 대세쥬?

‘마리텔’ 백종원, 구수한 말투로 인기 ‘손님’ 류승룡도 순박한 이미지 배가 ‘두 얼굴의...’ 충청도 드라마도 기획

“어때유? 그럴싸하쥬?” 연예계에 때 아닌 충청도사투리 바람이 불고 있다.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쓰이는 사투리로 대부분 경상도나 전라도사투리를 떠올리지만, 요즘엔 충청도 사투리가 ‘대세’다. 조연들의 정감 있는 모습을 표현하거나 웃음코드로 사용됐지만, 요즘엔 ‘흐름’을 주도한다. 충청도사투리 바람은 요리사 백종원(사진)이 먼저 불고 왔다. 그는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과 케이블채널 tvN ‘집밥 백선생’에서 “어때유? 어렵지 않쥬?”라는 등 구수하고 정감 있는 말투로 시청자들을 TV앞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무심하게 툭툭 내뱉는 사투리에 담긴 순박함이 웃음을 안긴다. 백종원 말투는 SNS 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유행어’가 되고 있다.

스크린에서도 충청도사투리가 들려온다. 배우 류승룡은 최근 개봉한 영화 ‘손님’을 통해 구수한 충청도사투리를 선보인다. 극중 착하고 사람 좋아 보이는 이미지를 충청도사투리로 배가시킨다.

연말에도 충청도사투리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전망이다. 12월 방송예정인 MBC 수목 드라마 ‘두 얼굴의 사나이’는 ‘전국이 봐야할



충청도 드라마’라는 기획의도에 따라 충청도 사투리가 주요 장치가 된다. 한 집안의 가장이자 조직폭력배 중간 보스로 살아가는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충청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는 것이 제작진의 포부다. 실제 충청도가 고향인 연기자 정준호와 이범수가 주연을 맡아 충청도사투리를 실감나게 들려줄 예정이다.

제작진은 “말은 느려도 성격은 급하고, 어수룩한 것 같지만 절대 손해 볼 짓은 안하는 충청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림 예정이다. 특정한 한 마디로 패부를 찌르기도 하는 특유의 사투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드라마평론가 윤석진 충남대 국문과 교수는 “사투리 연기는 캐릭터를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배우들에게 매력적이다. 특히 충청도사투리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해 이질감 없이 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유아인, 3라운드 연기 빅매치

영화 ‘베테랑’ 황정민 ‘사도’ 송강호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김명민까지 실력파 선배들과 3연속 연기 맞대결

유아인이 영화와 드라마에서 40대 연기파 배우들과 3연속 ‘빅매치’에 나선다. 하반기 공격적인 활동을 예고한 그는 8월 5일 영화 ‘베테랑’(사진)에서 만나는 황정민을 시작으로 가을 개봉하는 ‘사도’의 송강호, 10월 방송하는 SBS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의 김명민과 잇따라 맞붙는다. 또래 연기자가 밀려나 로맨티코미디에 집중할 때, 유아인은 실력 있는 선배들과의 ‘투톱 대결’을 택했다. 이 같은 ‘과감한’ 선택은 자신감의 표현이다.

유아인의 첫 약역 도전으로 관심을 얻는 ‘베테랑’(감독 류승환·제작 외유내강)은 약탈한 재벌3세와 형사의 이야기다. 앞서 ‘완득이’ ‘강철이’에서 건강한 청년의 이미지를 보여준 유아인은 안하무인 재벌3세 역을 맡아 자신을 쫓는 형사 황정민과 극한의 대결을 펼친다.

영화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극의 결말을 장식하는 유아인과 황정민의 치열한 액션 장면은 촬영단계에서부터 그 완성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소문이 퍼졌을 만큼 기대가 높다. 격렬한 몸싸움을 표현하기 위해 두 배우는 단 한 장면 촬영에 일주일의 쏟아 부었다.

유아인은 “그동안의 영화에서 거친 막 싸움을 보았다면 ‘베테랑’은 황정민 선배와 만



나 훨씬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완성했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유아인의 이후 행보 역시 맞대결의 연속이다. ‘사도’(감독 이준익·제작 타이거픽처스)에서는 송강호와, ‘육룡이 나르샤’(극본 김영현·연출 신경수)에서는 김명민과 각각 호흡을 맞춘다. 모두 조선시대가 배경이다.

유아인은 평소 송강호를 “존경하는 선배”로 꼽아왔고, 이런 신뢰로 인해 ‘사도’에 의욕을 보였다. 촬영을 앞두고 “감격적”이라고까지 표현했을 정도다. 이들은 영조와 사도 세자 역을 각각 맡고 비극적인 역사의 이면을 스크린에 펼친다.

드라마에서 만나는 김명민과는 적대적인 관계다. ‘육룡이 나르샤’는 조선 건국의 기틀을 다진 이방원과 정조전의 이야기다. 유아인은 사도세자에 이어 이방원 역을 맡아 잇따라 역사 속 인물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시선을 모은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헬스보이’ 복현규, 국가대표 보디빌더 꿈

NFC 보디빌더 대회 피지크 부문 1위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자격까지 따내 “난 개그맨...웃음으로도 인정받을 것”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개그맨 복현규가 KBS 2TV ‘개그콘서트-라스트 헬스보이’(헬스보이) 활약에 그치지 않고 국가대표 보디빌더라는 새로운 꿈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복현규는 11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2015 NFC 국가대표 보디빌더 선발전 피지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향후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권을 따냈다.

모델 출신답게 ‘헬스보이’에서 환상적인 키에 잘생긴 외모,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며 ‘미스터 복’ 캐릭터로 인기를 얻은 복현규는 12일 스포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나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헬스보이’를 계기로 건강한 몸매를 만들기 시작했다. 복현규는 “코너를 폐지할 때 앞으로도 계속 운동을 병행하겠다는 시청자들과의 약속도 있었고, 나 스스로도 계기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복현규는 11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2015 NFC 국가대표 보디빌더 선발전 피지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향후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권을 따냈다.

경기 한 달 전부터 본격 준비에 돌입한 그는 탄수화물을 완전히 배제한 식단에 대한 어려움이 제일 컸다고 털어놨다. 복현규는 “다른 선수들보다 늦게 시작해 더욱 타

이트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물을 못 마시는 것보다 닭 가슴살과 야채 등 한정된 식단만 먹었다”며 웃었다.

‘헬스보이’에 함께 출연한 동료들의 응원도 큰 힘이 됐다. 복현규는 “사실 대회 참가를 이승윤 선배에게만 살짝 얘기했다. 혹시 성적이 나쁘면 어쩌나하는 걱정 때문에 경기 날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김수영이 깜짝 응원을 와서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했다”고 덧붙였다.

복현규는 마지막으로 ‘개그콘서트’의 일원으로, 웃음에 대한 강한 욕심도 드러냈다. 그는 “국가대표 선발전 준비도 열심히 하겠지만 나는 개그맨이다. 몸 좋다는 칭찬보다는 ‘웃기다’는 칭찬에 목마르다. 새로운 코너를 준비하고 있으니 이제 웃음으로 인정받고 싶다”며 각오를 다졌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보디빌더 국가대표 출전권을 따낸 개그맨 복현규(가운데). 운동과 개그,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사연제공 | 복현규